

# 북한, 10월 10일 새 미사일 발사 준비 관측

(노동당 창건 기념일)

서해 동창리 로켓 발사장 내부 증·개축 공사 완료

美정보당국, 김무성 대표에 “10월 도발 주시” 당부

북한이 2012년 ‘은하 3호’를 발사했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동창리 로켓 발사장 내부의 증·개축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즈음해 북한이 군사적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이 곧 장거리 발사체 발사 준비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28일(이하 현지시간) 최근 촬영한 민간 위성사진을 관독한 결과 “올해 봄부터 진행됐던 발사대 주변의 증·개축 공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38노스는 로켓 부품을 발사대로 운반하는 이동식 지원 플랫폼이 완공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길이 24m, 넓이 30m, 높이 33m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발사대 끝의 새로운 발사지원 건물을

짓는 공사가 마무리됐다고 38노스는 밝혔다. 특히 새로운 발사지원건물 내에 우주발사체(SLV)의 각 단(段)과 탑재부가 가로로 준비돼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추후 몇개 층 높이의 이동식 지원 플랫폼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38노스는 관측했다. 여기서 발사대가 수직으로 세워지면 최종적으로 발사탑으로 이동하게 된다.

38노스는 이와함께 외부에서 반입되는 미사일 관련 장비의 존재를 숨기기 위한 은폐시설도 완료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궤도를 통해 들어오는 미사일 운반 컨테이너 등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8노스는 그러나 발사장 내부의 이 같은 움직임들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또는 우주발사체의 발사준비에 들어간 신호로 공식 단정하지는 않고 있다.

한편, 장일훈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

석대사는 이날 뉴욕 북한대표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10월 로켓(장거리 미사일) 발사설’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며 “미국의 군사적 억지와 압력에 대해 북한은 현대화되고, 확장되고, 강화된 핵무기로 대응할 것임을 과거에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장 차석대사는 이어 “따라서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를 실행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면서도 “그러나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 정보당국 핵심관계자는 27일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10월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즈음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38노스는 북한이 새로운 로켓 발사를 준비할 경우 2012년 발사한 은하 3호보다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38노스는 지난달 21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관독한 결과, 북한이 발사장에서 엔진 연소실험을 준비 중인 상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북한이 서해 동창리 로켓발사장에 67m 규모의 대형 발사대를 세운 정황이 포착됐다. 사진은 같은 곳에서 2012년 발사되고 있는 장거리 로켓 은하3호. /연합뉴스

## 美·일에 군사력 과시하는 중국

남중국해서 대규모 실전 훈련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28일 영유권 분쟁해역인 남중국해에서 군함과 군용기를 대거 동원, 실탄을 사용한 대규모 실전 훈련을 실시했다.

29일 중국 국방당국이 운영하는 사이트 중국군망(中國軍網)에 따르면 남중국해의 모 해상 및 상공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함정 100여척과 군용기 수십대, 정보화 작전 병력, 제2포병부대 소속 미사일 발사부대 등이 대거 동원됐다.

이번 훈련에서는 각종 미사일과 여러 등 수심발과 포탄, 교란탄 등 실탄 수천발이 발사됐으며 잠수함과 신형 호위함, 전투기 등이 가상의 목표물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이 사이트를 전했다.

훈련 책임자는 “기존의 대항전 가운데 육·해·공을 망라한 공간적 범위로 가장 큰 규모”라고 말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22일부터 약 열흘간 실시되는 중국 해군의 남중국해 해상 훈련의 일부분인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해군은 최근 최대급 공기부양선 등의 함정과 상륙부대, 헬기부대 등을 투입해 남중국해에서 ‘첫 입체 삼각작전 연습’도 전개한 바 있다.

중국군이 국지전에 대비해 대규모 훈련을 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중국의 행보는 미국과 일본의 동중국해, 남중국해 공세에 대응해 군사력을 과시하는 ‘무력시위’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 중국에 자금력 과시하는 일본

필리핀 철도사업에 2조원 제공

일본이 필리핀 철도 사업에 2조 원이 넘는 차관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니혼게이지(日本經濟)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필리핀 수도 마닐라 일대에 계획 중인 철도 정비 사업에 약 2400억 엔(약 2조2645억원)의 엔 차관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런 차관은 일본이 정부개발원조(ODA)로 한 번에 빌려주는 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일본 정부는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를 통해 필리핀에 자금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 돈은 마닐라와 북부 도시를 잇는 철도 약 40km 구간을 건설하는 데 쓰인다.

일본·필리핀 정부는 올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정상회담을 열고 차관 제공을 약속하는 서명을 추진한다. 일본이 차관을 제공하면 선로 부설, 차량 시스템 도입 등 철도 건설에 관련된 많은 사업을 일본 기업이 수행할 가능성이 커진다.

일본 정부가 필리핀에 거액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중국이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AIIB)을 발족하기로 한 상황에서 주도권 다툼을 의식한 측면도 있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마닐라와 남부 지역을 잇는 철도 사업의 입찰 절차를 조인하기로 하는 등 마닐라와 북부 도시를 잇는 시설 건설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

## 난민 2100명 영국 기습진입 시도 불발

200명 체포 나머지 쫓겨나

영국행을 원하는 난민 2000여 명이 28일(현지시간) 영불 해저터널인 유로터널로 진입을 시도해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AFP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날 밤 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유로터널이 시작되는 프랑스 칼레항의 터미널에 난민 2000여명이 진입을 시도했다.

이들은 페리에 실려 해협을 건너는 트럭에 몰려 타 영국행을 도모하는 난민들로 하룻밤 새 몰려든 인원으로는 이날이 최대였다. 유로터널은 자체 경비인력과 경찰을 동원해 난민 대부분을 쫓아냈으며 일부는 체포됐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당국자를 인용해

2100명 정도의 난민이 몰려들어 200명이 체포되고 나머지는 곧바로 쫓겨났다고 전했다. 난민들의 진입 시도로 칼레항 터미널에는 상당한 정체가 빚어졌다. 영국에서 프랑스로 건너오려던 승객들은 1시간을 기다렸고 반대의 경우도 30분을 대기했다.

난민들은 구적이 비교적 쉽고 보고 영국행을 택한다. 또 그간 익힌 영어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 수단, 아프가니스탄 등지 출신이 대부분인 이들은 칼레항 주변에 진을 치고 살다가 해협을 건너는 트럭이 정차한 사이 몰래 올라타는 방식으로 영국행을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지난 6월부터 난민 8명이 숨졌다.

## “누구도 평생 대통령 하면 안돼”... 오바마, 아프리카 독재자들에 일침

에티오피아 AU 주최 연설

“임기제한·헌법수호 힘써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프리카 정치 지도자들의 장기집권과 권력 유지를 위한 헌법 유린을 솔직한 화법으로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미국 뉴욕타임스, AP통신 등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아프리카 연합(AU) 주최로 열린 연설에서 “누구도 평생 대통령을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피와 새로운 생각이 돌아야 여러분의 나라가 더 번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는 아직 젊지만 새로운 활력과 통찰력을 지닌 누군가가 미국을 위해 더 좋을 것이라는 점을 안다”고 말하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에는 수십 년 동안 왕처럼 정권을 유지하는 대통령들이 즐비해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충고는 솔직함을 넘어 매우 공격적으로 비친다.

통치자들의 집권 시점을 보면 테오도로 오비앙 은게마 음바소고 적도기니 대통령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에티오피아에서 열린 아프리카연합(AU) 주최 연설에서 “아프리카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며 장기 집권 독재자들을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 1979년,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은 1980년, 폴 비야 카메룬 대통령은 1982년,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1986년, 오마르 하산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은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내년에 퇴임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법제도를 따로 특별히 강조하며 다수 아프리카 국가 대통령들의 장기집권 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나는 꽤 좋은 대통령이라고 생

각한다. 다시 출마해도 이길 수 있지만 출마할 수 없다”면서 “미국이 계속 변혁하도록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법은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은 없고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헌법까지 짓밟는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진통이 끊이지 않았다. 브룬디 대통령은 내전을 끝낸 평화협정의 내용뿐만 아니라 헌법까지 위반하며 자신의 세 번째 임기를 위한 선거를 강행해 나라를 혼돈에 빠뜨렸다.

부르키나파소에서는 27년 동안 정권을 장악한 블레즈 콤포오레 대통령이 5선 연임을 시도하다가 쿠데타에 무너졌다. 르완다에서는 폴 가가메 대통령이 3선을 위해 출마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의회에서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콩고에서는 헌법에 적시된 마지막 두 번째 임기가 내년에 끝나는 조셉 카빌라 대통령이 대선을 연기하려고 하다가 충돌을 빚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쿠데타, 불법적인 정권인양을 규탄해온 AU가 앞으로도 아프리카 정치 지도자들이 임기제한, 헌법을 지키도록 힘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외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파죽지성 5회연속 선정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정성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는 신기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 대산프리모 가발

대산프리모가발